

남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내달 개최

대연3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다뤄

남구의회(의장 박영근)는 내달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위원장 손애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5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호)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안전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2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2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관련규정과 일치

시킴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임을 명시하고자 함(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부패영향 분석과 -4170 (2012.11.16)).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연제3동주민센터를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여 사실과 맞게 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규정에 「위원의 제적·기피·회피」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규정에 「위원의 제적·기피·회피」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위원의 제적·기피·회피」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상략 및 예고기간 단축사유를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령 개정 (2009.12.31.)

사항을 반영하여 이전 제령으로 남아 있는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 제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안행부 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국과 도시안전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2014년 사회복지직 순증 인원과 2013년 제2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합격자를 정원에 반영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총계,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 기능직 계를 조정하고 함.

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수분하시 당서기장의 남구 방문을 제안했고 당서기장은 조만간 남구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방문단의 활동은 흑룡강성 지역 TV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남구의회 방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수분하시는 지난 2006년 10월 조영국 부시장 등이 남구의회를 방문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듬해부터 두 도시간을 오가며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의회 사무국 ☎ 607-6521 ~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당일 오셔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안내

- 기 간 : 2013. 9. 2. ~ 9. 27.
- 대상토지 : 2013. 1. 1 ~ 6. 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사유가 발생된 토지
- 접 수 처 : 구청 토지관리과 ☎607-4752 ~ 5)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접수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작성 서면 제출

승용차요일제 참여실태 등 설문조사 안내

저탄소 녹색교통 시책의 일환인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참여 실태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13. 8. 19 ~ 9. 17(30일간)
- 대 상 : 주민 누구나
- 설문내용 : 총 13문항 (인지도, 홍보방법, 인센티브 개선, 참여태도 등)
- 참여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를 통하여 설문
☞ 마일리지 500점 부여 (시 홈페이지 가입에 한함)
- 문 의 처 : 시 교통정책과 (888-4372), 교통행정과 (607-4552)

제9회 '오륙도 문학' 신인작품상 공모

남구문인회에서는 제9회 오륙도문학 신인작품상을 공모합니다.

- 종별 및 분량 : 시·시조·동시 : 5편 이상 / 단편소설·동화 :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 수필 : 3편 이상, 200자 원고지 14장 내외
- 자 격 : 만 18세 이상 남구주민
- 기 한 : 10월10일까지 (단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제 출 처 : (608-072)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동 전선동로 3번길 60-10 오륙도문학 편집실
- 문 의 : 010-3637-2879 / 011-9034-2170, slee2723@hanmail.net

중국 수분하市 초청, 국제국경무역박람회 참석

경제·문화 협력 방안 논의, 각종 정보 수집하며 의정활동 펼쳐



중국 수분하시 초청으로 국제국경무역박람회를 찾은 의원들이 남구홍보 부스가 설치된 시설을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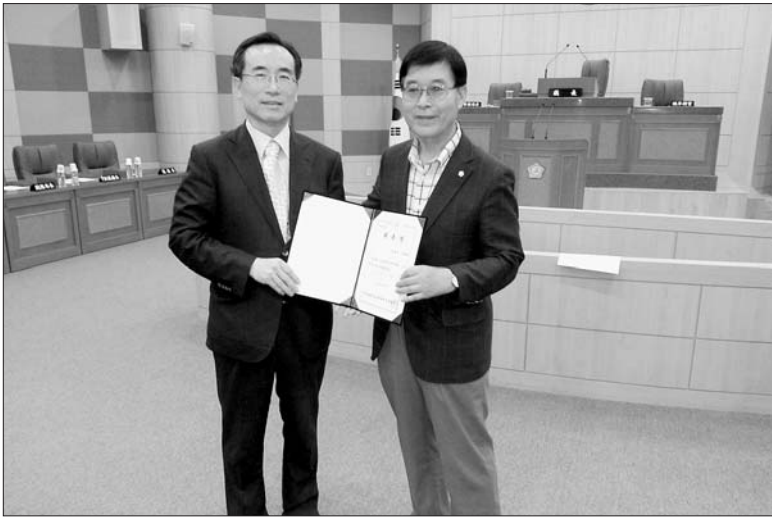
남구의회 박영근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2013 중국·수분하 국제국경무역박람회에 참석했다.

중국 흑룡강성 수분하시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동해를 접한 연안도시간의 경제·문화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국제국경지역의 무역과 문화, 관광 등 각종 정보를 수집, 의

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의회 방문단은 박람회 기간 중 남구 홍보를 위해 박람회장에 부스를 설치, 갈매길과 오륙도, 신선대 등 남구의 자연과 관광지, 신선대부두, 광안대교 등 각종 시설물을 소개해 현지인은 물론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방문단은 또 박람회장 곳곳에 마련

된 각국의 부스를 찾아 타 도시의 특색 있는 문화와 경제협력방안 등을 벤치마킹했다. 보세구역 박람회와 한국기업관도 방문해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방문단은 지난 9일 수분하시 당서기장을 접견하고 수분하시 정부와의 상생발전 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남구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과 부산시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김백영 변호사를 남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 박영근 의장을 비롯한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성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 의원인턴십 - 손애휘 총무위원장

UN평화기념관 건립에 ‘온힘’

경영학 박사 출신 의회 ‘싱크탱크’ 역할 톡톡

UN평화특구사업 실무 총괄 지역발전 앞장

손애휘 총무위원장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연구기관과 부산시, 대학 등을 거쳐 의회에 입성, 시·구청과 의정, 학계를 두루 파악하고 있는 의원으로 명성이 높다.

많은 주민들과 동료의원들은 손위원장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의원의 신념과 전문성을 갖추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일꾼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손애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근황은.
▶UN군 참전·정전60주년 기념 ‘평화를 노래하는 청소년들의 영어도론대회(Youth English Debate Championship)’를 부산산업방송국과 함께 몇 개월간 준비했다. 부경대에서 지난 17일과 18일, 2일에 열렸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중·고등학생 등이 참가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의정철학과 그동안의 의정성과는.
▶정책을 연구·개발, 직접 추진해 나가는 능동적인 의원이 되겠다는 목표 하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남구 UN평화도시’의 구현에 두었다. UN평화특구사업은 사업개발과 진행 및 국·시·비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의회가 리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의회의 자치입법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 여성발전,

재향군인과 참전유공자 예우,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과 관련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0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회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시에는, 총무위원장으로서 실국별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별 세부 계획과 예산집행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의원간담회를 주관하여 사무감사의 전문성과 예산의 수정안 발의비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집행부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가장 많은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 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

－UN평화기념관 등 UN평화특구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남구가 세계평화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사명감과 함께 하나씩 나타나 는 결과에 대해 큰 보람도 느끼고 있다. UN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명칭 사용허가를 받은 UN평화문화특구 사업, UN평화음악회 등 UN평화대추전 개최와 UN평화기념관 건립사업, UN평화교육센터 건립구상 등의 사업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UN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과 ‘8·25 참전 UN군 활동 기념조형물 설치사업’ 등은 사업



주체들을 통해 2013년도 남구사업으로 확정되도록 한 후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다. 그 외 제16회 전국대학생 모의UN회의 개최(부경대) 지원이나 UN서포터즈(자원봉사단)를 발족하여 태극의 참전용사촌과 올해는 필리핀 참전용사촌에서 교육 및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야스온시에 문화센터 건립과 문화지원사업을 추진, ‘참전국평화나눔사업’을 대동시키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UN평화기념관이 2014년 6월 준공된다. UN평화기념관의 전시연출과 유물 확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각국 대사관과 참전국 보존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보훈처와 함께 세계평화도시 네트워크 조성 및 참전국평화교류사업과 봉사활동 확대, 참전용사 유가족과 우리 청소년간 교류사업, UN평화타운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획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UN평화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화로 세계를 주도하는 남구시대를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구의회 의원 조례안 발의 ‘붐’

김동환 의원…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이진호 의원…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조례안

박기홍 의원…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



김동환



이진호



박기홍

남구의회 김동환 의원 등은 제220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를 통

지난 17일 남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진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 드는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보완키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기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의원칼럼 - 오 은 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에어컨 땡땡하게 트세요”



오은택

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에어컨을 땡땡하게 트세요?”라고 인사말을 하자 어르신들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다. 나는 의아해 그 이유를 물었다. 어르신들은 “전력대란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에어컨 작동을 최대한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역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구나!”라며 무릎을 쳤다. 어르신들의 몸에 땀 질약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편한 보다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인가.

일제강점기와 6·26전쟁 등의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희생으로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한 역군이 아니었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뒤돌아볼 새도 없이 한평생을 사신 부모님 세대들의 무한 나라사랑 정신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지역의 경로당을 찾은 적이 있다.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이 힘없이 계시는 모습을 보며 여

이가기만큼 해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다. 순간, 감탄동 한 경로당에서 서용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전지체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마련할테니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세요”라고 밝힌 내용이 생각났다.

본인이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에어컨을 땡땡하게 트세요”라고 얘기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마시고 여생을 편안히 사시라는 뜻을 담아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여러 가지 상념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한가지 확신은 들었다.

무한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예산을 건의하고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